

정보화전략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

[회의개요]

- ◆ 일 시 : 2012. 10. 30(화) 14:00~16:00
- ◆ 장 소 :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
- ◆ 참 석 :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20명
- ◆ 안 건 : 1) 정보화기본계획 '스마트서울 2015' 추진 현황
2)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(WeGO)추진
3) 열린 데이터 광장 추진

□ ○○○ 위원

- 지리정보담당관이 공간정보담당관으로 바뀌고 유시티추진담당관이 없어지면서 기능이 나뉘진 것 같은데 9.28일자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 바람.
- 2013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, 꼭 해야 할 사업을 못하게 된 경우는 없는지 설명 바람.

□ 정보화기획단장

- 예산 감소는 정보화기획단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,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.
- 정보화기획단은 5개과에서 4개과로 축소되었으며, 유시티추진담당관의 업무가 공간정보 및 모바일업무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 GIS에 공간정보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업무를 확대하여 지리정보담당관을 공간정보담당관으로 변경하였음.
- 조직개편 시 보안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희망하였으나, 반영되지 않았음. 해킹, 내부 장애 등 시스템 중단 요인에 대응하는 정보통합보안 담당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.

□ ○○○ 위원

- 어떠한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. 특정 브라우저에 편향된

교육이 아니라면 의미가 있을 것임.

- 오픈 소프트웨어 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 및 취약계층에 제공하는지 여부와, 일반시민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지 설명 바람.

□ 정보화기획단장

- 서울시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스마트 기술을 서울시민의 기본 권리로 만드는 것임.
- 통신사와 협력하여 중고스마트폰을 지원하고, 무료 공공WiFi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여 유니버설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고, 관심있는 시민들이 스마트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임.
- 정보화교육의 경우 시민들의 수요 변화에 따라 웹브라우저보다는 스마트 기기, SNS 활용 등으로 교육내용을 변경하고 있음.

□ ○○○ 위원

- 2010년 자치정보화대상 경진대회에서 서울시가 수상했던 ‘정보화사업 추진 체계’가 지속되고 있는지 설명 바람.
- 공공데이터 활용은 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국가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공간정보 활용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. 서울시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이 감소되는 상황에서,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사업과 연계하면 좋을 듯한데 현재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 설명 바람.
- 직원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근처의 유비쿼터스 건물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센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바람.

□ 정보화기획단장

- 정보화사업 추진 시 예산 심사,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담당하는 팀이 있어 투자관리를 실시하고 있음.
- 지자체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도화 되어있어 정보화사업의 중복 추진을 방지하고 있으며, 중앙정부에서

추진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.

- 서울시는 양재동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, 근무지 근처 거주 직원의 비율이 높으며, 특히 임산부 또는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매우 높아서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. 센터 중심의 스마트워크가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.

□ ○○○ 위원

- 의회 예산 심의 전에 사업부서 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조정하여 제출하고 있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하는 경우도 있음.
- 장애인이 미술관,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을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장애프리존사업의 경우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업에 멈추지 않고 시각, 신체장애인 대상으로까지 지속 추진하여야 함.
- WeGO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, 다른 도시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서울시가 가장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설명 바람.

□ ○○○ 위원

- 서울시립대에서 계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, 교과부에서 30명 증원을 받아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을 만들었음.
-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사과정 교육 의뢰를 받았는데 WeGO와 같은 그동안의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 열매가 맺힌다는 생각이 들었음.

□ ○○○ 위원

- 국제기구로 발전해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함.
- 서울시와 행안부가 전자정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 것은 축하할 일이며,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WeGO를 창립하였음.
- 국제기구는 회원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정석이나,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초기투자의 과정이라 생각하여야 함.
- 현재는 사무국 역할을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,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제기구 수준의 사무국으로 점점 발전시켜나가는 비전을 갖고 노력 한다면

- 머지않아 세계적인 국제기구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임.
- 녹색기후기금(Green Climate Fund)을 인천에서 유치했듯이, WeGo를 빨리 국제화시켜서 공인된 사무국을 확보한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임.
- ‘스마트서울 2015’는 개별 서비스에 대하여 잘 망라되어 있으나, 이러한 서비스들을 해석하여 그룹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임.
- 행정안전부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체제 구축이 논의되고 있는데, 서울시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체제에 대한 구상이 반영되면 좋을 것임.
- 오픈데이터, 빅데이터, 오픈시스템 등 열린데이터 광장 추진을 통해 플랫폼 거버넌트를 구축하려는 취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데이터를 잘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, 정보화를 잘 추진함으로써 연계되는 미래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, 그러한 미래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함.

□ 정보화기획단장

- ‘스마트서울2015’는 2011년 상반기에 수립된 것임. 기술 발전이 빠른 IT 분야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연동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, 그 때에는 정보화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임.
- 올해는 서울시의 부담이 크긴 했으나 WeGO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회비 제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, 글로벌 기업의 스폰서십 연계 등을 통해 서울시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.

□ ○○○ 위원

- ‘스마트서울 2015’과 같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정을 구현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나, 너무 단타적 서비스, 아이템 위주로 나열된 것 같음.
- 물론 시민 입장에서는 서비스 단위로 표현되는 것이 좋겠으나,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람.
- 서울시 정보시스템 관련 심사를 해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알기 힘들었음. 각각 정보시스템의 계획은 있으나, 전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음.
- 기획단에서 단타적 아웃소싱 작업보다는 정보화 인프라에 대한 마스터

플랜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임.

- 일반 개인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서울시민임.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중소기업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기업 상생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와 스마트 경제를 기획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임.
- IT기업이 만개 이상 있는 구로디지털단지과 관련된 장기적인 플랜을 기획하여 우량한 기업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가기 바람.

□ ○○○ 위원

- 서울시의 데이터는 무궁무진하며, 모든 도시에서 탐을 내는 데이터베이스 이나, 현재 일사용량은 총 700만건에 불과함.
- 서울시의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2천만 이상이 서울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, 현실적으로 2013년까지 구축해야할 일이 많음.
- 120개가 넘는 서울의 공원 등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고도화가 필요함.
- 스마트시대에 스마트하지 않은 데이터는 버려야함. 과거의 웹 이미지 데이터는 해상도가 낮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없음.
- 서울시의 조직을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체계한다면 100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매시업 할 수 있음.
- 좀더 활짝 열고 과감히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을 바람.

□ ○○○ 위원

- 사랑의 PC 사업 추진시 교육청과 협의하여, 초,중학생 대상으로 간단한 PC복구방안, 바이러스 치료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 바람.

□ ○○○ 위원

- 정보화에는 정보화를 추진하는 촉과 역기능에 대비하는 축, 즉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, 정보보안에는 침해대응 기능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음.
- 서울시는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를 하고 있으므로, 기획단장은 CIO(Chief Information Officer)뿐 아니라, CSO(Chief Security Officer)와 CPO(Chief Privacy Officer)의 역할까지 하여야 함.

- CSO는 서울시의 정보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이며, CPO는 서울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임.
- 공공WiFi 확대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며, WiFi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공격 등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.
- 서울시 사업을 심의하면서 살펴보니 아직은 WIPS(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, 무선침입시스템)가 전체영역에 적용되지는 않았음.
-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역기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, 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가스, 수도, 지하철 등 기반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과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.
- 스마트사회가 되면서 정보보안의 문제는 곧 민생의 문제이므로, 보안전담 조직 신설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.

□ ○○○ 위원

- 프라이버시의 정책적인 측면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으며, 저작권에 대한 사항도 정책적으로 정리가 되면 좋을 것임

□ ○○○ 위원

- 서울시는 이미 굉장히 성장한 도시이며, 책임과 영향력이 큰 도시이고 그 영향력은 세계적이기까지 하므로, 성장기에 고민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정보화 전략이 필요한 때임
- 서울시민 뿐 아니라 타 지자체와 전세계 도시가 서울시를 보고 있으므로, 리더로서의 기획이 필요한 시점임. 리더는 비전을 보여주고 팔로우를 이끌어야 함.
- WeGO, 열린데이터 광장 등 모든 사업을 단발마적으로 보지 말고 원하는 목적을 성실하고 진정한 태도로 성취해가는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함.
- 미래의 정보화는 에코시스템적(생태계형)으로 발전하고 있으며, 생태계의 리더로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.
-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발휘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와 혜택이 발생하게 되며, 서울시민 모두가 그 혜택을 나눌 수 있음.
- 생태계형 환경에서는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중에 수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.

□ ○○○ 위원

- 1등이 되면 1등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,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, 그것은 서울시만의 책임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창의적인 월드클래스 제품을 지속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업을 하여야 함.

□ ○○○ 위원

- 산업육성 측면에서 앱개발 지원사업 추진 시 애플이나 구글에 종속적인 앱개발 육성보다는 요즘 추세인 html5 기반의 웹앱 개발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기 바람.

□ ○○○ 위원

- 무료WiFi의 보안 강화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, 물리적인 장비 도입 등 시스템을 강화하여 보안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사용자에게 대한 인식 교육과 안내, 콘텐츠 보안에도 힘써야 함.
- CCTV 관제센터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, 관제센터의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자치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임.
- 서울시의 재해예방 사업이 정보화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, 재해대책본부, 재난센터, 경찰력 등과 연계,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더욱 도움이 되는 선진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람.

□ ○○○ 위원

- WiFi는 13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방통위와 전자통신연구원, 이동통신3사와 실험한 결과 1,5,9,13번 채널을 중복하여 쓰는 것이 가장 처리율(throughput)이 높았음
- 1,5,9,13번 채널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고, 이동통신3사는 거의 전환을 하였으나, 개인 유저나 커피숍 등에서 운영하는 AP 및 070 전화 등은 아직 준비가 안된 경우가 많음

- 향후 공공WiFi 추진시 1,5,9,13번 채널을 이용하도록 구축해주시기 바람

정보화기획단장

- 공공WiFi는 서울시가 직접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, 이동통신3사에서 구축한 무선망을 서울시와 협력사업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므로 AP에 이미 1,5,9,13번 채널이 반영되어 있음

○○○ **위원**

- 인프라,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,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한 마케팅, 운영 방안 등이 수시로 점검되어야 하며, 운영을 염두에 둔 계획 수립이 함께 추구되어야 함

○○○ **위원**

- 미래형 정류장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바람.

정보화기획단장

-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단말기를 통해 영상 등의 정보를 컨트롤하고 무료WiFi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나, 아직 WiFi제공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임.
- 미래형 정류장 U-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화 되지는 못하고 있음.

○○○ **위원**

- 정보화기본조례에 따르면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 전체 정보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 하며, 중앙부서와의 연계 못지않게 시 자체에서 부서간 연계도 중요함.
- 연구보고서 등이 나오면 위원들에게 사전에 공유해주면 좋은 아이디어와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임.
- 시민들이 정보화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정보화백서를 만들어 정보화시행계획에도 참고하고 홍보에도 활용하면 좋을 것임.

□ ○○○ 위원

- 참고로 중앙정부의 경우 개별 정보화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, 정보화부서에서 모든 부서의 정보화사업을 모아서 통합,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있음

□ 정보화기획단장

- 서울시 정보화 사업 추진에는 4가지 현안이 있음.
 - 첫째, 정보보안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.
 - 둘째, 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공동 활용 하기 위하여 흩어져 있는 데이터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함.
 - 셋째,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가 아직 약하고 행정데이터도 대부분 모바일 기반이 아닌 PC기반 데이터임.
 - 넷째, 내부적으로 협업시스템을 만들고 협업결과가 서울시의 정보로 축적되어 가는 새로운 업무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.
-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연동계획 수립시 반영하겠음.

□ ○○○ 위원

- 서울시 정보화의 성공이 국가정보화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.
- 4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보완계획을 잘 세우고, 오늘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기 바람.
- 스마트도시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위원들과의 협업을 유지해주시기 바람.